

기아차노조 내부서도 “파업 안돼”

조장·생산자관리협 자제 호소 “강행땀 조합원·공장 모두 피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정치파업'에 대해 재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기아차 노조 내부에서 파업자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지난해까지 16년 연속파업을 해온 기아차 노조에서 처음 있는 일이며, 조합원 스스로 파업 자체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3면> 이에 따라 오는 27일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28, 29일 10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려는 기아차 노조의 일정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들 두 협의회 회원수는 기아차 전체 조합원 2만7천여명의 11%에 해당한다. 조합협의회는 'KIAPOWER'라는 소식지에서 "정치파업은 회사와 정부측에게 불법파업이란 명분을 제공해줄 뿐"이라며 "국민 동의없는 정치파업이야말로 조합원들의 생존권 침해와 고용불안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생산관리자협의회도 소식지 '함께 가는 길'을 통해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10년 전의 부도사태를 되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함께 고민할 때"라며 "유동성 위기를 최고경영자가 해결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파업을

예고하는 현실에 대해 많은 동료들이 격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광주·전남 경총을 비롯한 광주지역 경제단체와 광주공장 협력업체 임직원 100여명은 26일 낮 기아차 광주공장 남문 앞에서 파업철폐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쌍용차·GM대우 노조도 금속노조의 한미FTA 반대집회 참여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 지부는 이미 예고된 26일 평

택공장의 부분파업시 '대의원 간담회'를 갖고 파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GM노조 관계자는 "금속노조 내에서 가장 큰 조직인 현대차 노조가 부분파업을 철회한 이상 파업의 힘이 빠진 게 사실"이라며 "완성차 노조들이 여론 등을 의식해 선뜻 파업에 동참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타사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F1특별법 제정 결의대회
영암군 사회단체연합회는 25일 오후 영암실내체육관에서 F1특별법 통과와 대불부위의 하역노무권 영암 이전을 촉구하는 범국민 결의대회를 마친 뒤 현대삼호중공업 앞까지 차량 시위를 벌였다. 이날 행사에는 영암군민 5천여명이 참가했다. > 관련기사 12면 /최혜진기자 choi@kwangju.co.kr

캄보디아 여객기 추락 한국인 14명 숨진 듯

프놈펜 남쪽 250km 지점서

한국인 14명 등 22명을 태운 캄보디아 전세기가 25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엤립공항을 출발한 뒤 40분여만에 행방불명돼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교도 등 외신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현지 관계자들은 이 전세기가 앙코르와트로 유명한 관광도시 시엤립을 출발해 남부 항구도시 시아누크빌로 가던 중 남부해안 인근 캄포트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캄포트는 수도 프놈펜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져 있는 해안지방이다. 본 라타 시엤립공항 국장은 "헬기



를 예상 사고지역에 파견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으나 비가 내리고 숲이 우

거져 아직 현재조차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비행기에는 한국인 14명과 3명의 체코인, 러시아인 1명, 승무원 5명 등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당국자는 "전세기 실종사실은 확인됐으나 추락 여부 및 승객 사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인 탑승자 14명은 여행사에서 모집한 관광객들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인 탑승자는 조윤유(6), 조운민(1), 황미혜(42), 이종원(47), 이정민(16), 이준기(15), 이명욱(28), 노정숙(28), 윤현숙(34), 조종욱(36), 서유경(26), 최찬래(49), 박진완씨 등이다. /하노이=연합뉴스

금속·보건의료 노조 오늘부터 총파업

민주노총 산하 광주·전남지역 금속노조와 보건의료 노조가 26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광주·전남지역 금속노조는 25일 "중앙위의 결정에 따라 26~29일 한미 FTA 체결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는 2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8, 29일 10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캐리어 광주공장 노조와 현대삼호중

공업 노조도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28, 29일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이들 노조는 29일 농민회·진보연대 등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 협정 저지'와 광주시청 비정규직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에도 동참하게 된다. 전남대병원 등 이 지역 14개 병원이 가입해 있는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의료법 개악안 폐기' 등을 주장하며 26일부터 총파업을 할 예정이다. 26일에는 노조원의 10%가 부분파업을 실시하고, 28일에는 상황에 따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5일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파업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이는 법이나 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

유망학원 장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01~9
세계로 앞서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못말리는 수녀들의 4번째 폭스탄
웃으세요, 행복이 옵니다
‘넌센스 크래커’ 광주 공연
● 일시 : 2007년 6월30일(토) 오후 4시, 7시30분
2007년 7월 1일(일) 오후 3시, 6시30분
●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예매 : www.ticketmaru.co.kr
● 문의 : (062)220-0541, 1588-0766
광주일보 (주) 공연마루 호남대학교

교육부 “내신 40~50% 반영 교수”

8월20일까지 올 전형안 제출 요구...대학들 반발
교육부는 25일 올해 대입 내신반영 비율을 당초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40~50%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교육부와 협의 거쳐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주요 사립대학들은 "교육부의 대학 자율권 침해가 더 심해졌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주요 교원단체들도 "현실을 무시한 미봉책"이라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3면>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학생부 중심 2008학년도 대입 제도의 기본방향을 확고히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 대책과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대학이 발표한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비율을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특별한 사유로 입학 전형에 어렵게 할 우려가 큰 경우 대학은 구체적 사유를 포함한 연차적 확대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와 협의를 거친 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각 대학은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한다. /황태기자 hwangtae@

www.park1004.com 분양문의 062)521-1100
고인의 편안한 안식처가 될 호남최고의 명당
청계공원을 추천합니다
풍수지리상으로 황금 닻이 알을 품고 있는 「금계포란형」으로 자자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형인 배산임수의 묘원에 자리한 청계공원은 고인의 영혼이 안식을 찾는 천혜의 명당입니다.
현장답사 환영 (평주=청계공원)
방문전 전착순 예약 • 오전 10시 출발
• 오후 2시 출발
■ 시행사 : (주)파라밸리 ■ 재단법인 : 청계공원 청계원
아름다운 청계원